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 제21호 소개

2013년 6월에 창간하여 격월로 발행되고 있는 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가 이번 달로 제21호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결같이 보내주시는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헌법판례동향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치료를 거부하는 피후견인에게 강제적 의료조치를 취할 국가의 보호의무' 사건은 당사자의 자유의지에 반하여 강제적 의료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대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건 당사자가 사건 계류 중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문제가 된 규범의 위헌 여부가 충분히 중요하고 근본적인 해결의 필요성이 존재한다면 당사자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정신질환이나 정신적·심적 장애로 인해 의료조치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러한 인지에 따라 행동할 수 없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구체적인 보호의무를 갖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스트리아 판례로 소개된 '난민신청사건에서 보호되는 외국인의 평등권과 심사의 한계' 사건은 난민신청사건에서 고려해야 할 여러 기준에 대한 사건입니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난민 및 망명신청과 관련하여, 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 제19호에 소개되었던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의 '단기로 규정된 망명신청사건 이의제기 기한의 위헌성' 사건, 뉴스레터 제18호에 실렸던 유럽인권재판소의 '망명신청심사에서 고려해야 할 피신청국의 절차적, 실체적 의무' 사건, 뉴스레터 제10호에 실렸던 오스트리아의 '동성애자 망명신청에 대한 재판소원' 사건, 뉴스레터 제4호에 실렸던 스위스의 '난민의 혼인할 권리에 관한 결정', 뉴스레터 제3호에 실렸던 오스트리아의 '장애인 난민의 귀화신청' 사건, 뉴스레터 제2호에 실렸던

독일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활보호급부규정의 위헌성' 사건과 같이 보시면 더욱 좋을 듯합니다(뉴스레터 지난호는 헌법재판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연구원 홈페이지: http://ri.ccourt.go.kr/cckri/cri/main.do

미국 연방대법원의 '텍사스 주 낙태제한법 위헌 결정' 사건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반복해서 문제되고 있는 낙태시술에 대한 사건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다시 한 번 부당한 부담(undue burden) 심사를 적용하여 태아가 자궁 밖 생존능력을 갖추기 전(previability)에 낙태시술을 원하는 여성의 권리에 부당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캐나다의 '성범죄자에 대한 형법 규정 소급적용의 위헌 여부' 사건은 성범죄자의 범행 시점과 판결 시점 사이에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이 달라진 경우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성범죄자가 16세 미만의 사람과 어떠한 접촉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의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인터넷이나 기타 디지털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프랑스의 '부르키니 착용 금지의 위헌성' 사건은 해변에서 이슬람 여성들의 부르키니(이슬람 여성들의 전통 복장인 부르카와 비키니의 합성어) 착용을 금지한 것이 문제된 사건이며, '노동법 개정에 대한 추상적 규범통제' 사건은 노조가 사용하는 장소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권 등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법의 개정 절차와 내용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벨기에 헌법재판소의 '친자관계의 본질에 따른 성년자의 입양에 관한 처우의 차이' 사건은 입양으로 친자관계를 맺은 성년자가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 다시 입양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상황이 문제된 사건이며,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폭력적인 피케팅의 책임 귀속과 파업권의 침해 여부' 사건

은 총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파업의 주도자가 갖는 민사 책임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 세계헌법재판기관 소개

동유럽의 불가리아 헌법재판소와 크로아티아 헌법재판소를 소개하였습니다. 두 나라 모두 1990년대 초반에 헌법재판소가 설립되었는데, 그 시절은 소련에서 독립한 많은 동유럽 국가들에 대하여 유럽평의회, 특히 베니스위원회를 중심으로 유럽의 보편적 기준으로 헌법재판소의 설립을 권고하였고 대부분의 동유럽 국가들이 이 시기에 헌법재판소를 설립하였습니다. 이는 1990년대 전 세계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급속히 활성화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 세계헌법재판 관련 법령

지난 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 제20호 소개말에서 이미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번호에서는 '일본국헌법의 개정절차에 관한 법률' 제89조에서 부칙까지를 실었습니다. 지난호에 실렸던 '일본국헌법의 개정절차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88조까지와 함께 보시면 전체적인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언론 속의 세계헌법재판 및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

2016년 8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언론 기사 속에 비친 세계헌법재판동향을 모아 놓았습니다. 링크를 연결하시면 해당 기사를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에서는 최신 학회지에 실린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 국외통신원 소식

지난호에서 알려드렸던 2016년 헌법재판연구원 국외통신원 모집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역량 있는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셨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열 분이 선발 또는 재위촉 되셨습니다.

중국 화동정법대학 박사과정 문혜정;
미국 위스콘신주립대학 로스쿨 S.J.D.과정 김면기;
미국 에모리대학 로스쿨 J.D.과정 강병호;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J.D.과정 이창원;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립대학 법학과 박사과정 이승희;
독일 하노버대학 법학과 박사과정 구슬;
프랑스 파리 제1대학 국제법 석사과정 홍승표;
프랑스 파리 제2대학 유럽법 석사과정 강소휘;
프랑스 엑스 정치대학 박사과정 이신이;
멕시코 이베로아메리카나대학 법학과 석사과정 김민주.

앞으로 현지에서 많은 생생한 소식을 전해주실 것이라 기대하며 이번호에서는 미국과 중국 국외통신원이 보내주신 '美 동성결혼 및 동성부부의 권리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헌법학적 고찰'과 '알 권리와 잊혀질 권리, 그리고 표현의 자유 사이의 딜레마: '잊혀질 권리'와 관련한 일본 법원의 판례'를 실었습니다. 현지의 생생한 소식을 통해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가 더욱 풍부하고 신속한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를 발행하는데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헌법재판연구원

비교헌법연구팀장 김성진